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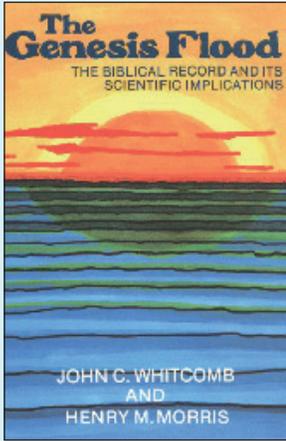


창세기 홍수(*Genesis Flood*) 공동저자

존 휘트컴 박사 소천

지난 2월 5일 창세기 홍수(*Genesis Flood*, 1961) 공동 저자인 존 휘트컴(John Whitcomb, 1924~2020, 미국) 박사가 소천하셨다. 향년 95세.

1961년 존 휘트컴과 헨리 모리스(Henry M. Morris) 박사에 의해 공동 집필된 <창세기 홍수: 성경 기록과 과학적 의미> (*Genesis Flood: The Biblical Record and Its Scientific Implications*)는 창조과학의 고전이 되어 현대 창조론 운동의 기초를 세우는 기념비적인 책이다. 저자인 두 분은 이 책을 통해 창세기 홍수의 과학적, 성경적 증거와 함께 수십억 년을 말하는 진화론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비판하였고,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어 현대 창



조과학 사역의 시발점을 이루게 된다.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당시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창조과학 사역이 구심점을 갖게 되었고, 1963년 창조연구회(Creation Research Society)에 이어 1970년 창조연구소(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가 출범하기 까지 이른다. 아울러 교회가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휘트컴 박사는 1924년 워싱턴 D.C.에서 태어났다.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하여 역사 지질학과 고생물학을 공부했으며 학위는 역사학으로 받았다.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으며, 이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1948년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한 후 그레이스 신학교(Grace Theological Seminary, 인디애나주)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중국으로 갈 계획을 세웠으나 선교의 길이 막히며, 1951~1990년까지 약 40년 동안 그레이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된다. 이때 젊은 지구 창조론과 함께 구약과 히브리어를 가르쳤다. 그는 신학교에서 은퇴한 후 1992년 Grace Brethren Church International을 설립하며 성경을 변증해왔다.

휘트컴 박사가 자신의 삶에서 기독교 변증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전기는 1953년 ASA(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에서 '현대 창조 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헨리 모리스(Henry M. Morris, 1918~2006) 박사와 만났을 때이다. 당시 루지애나 대학 공대 교수였던 모리스 박사가 ASA에서 '홍수지질학과 창세기 1장의 하루에 대한 발표'를 하였는데 이때 발표 내용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으며 서로가 창세기에 기록된 옛세 동안의 창조와 전 지구적 홍수에 대한 믿음을 공유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에 미국 대부분의 신학교는 이미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기에 6일 창조와 전 지구적 홍수는 신학계 안에서 거센 반박에 부딪히는 상황이었다. 이때 그는 모리스 박사와 함께 진화론적 방사능 연대측정과 지층의 형성 등의 기존 이론을 반박하는 격변적 모델을 통해 성경을 변증할 책을 출판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 책이 바로 <창세기 홍수>이다.

휘트컴 박사는 변증학뿐 아니라 평생 스페인 세계 복음 선교부 등 해외선교에도 크게 관여했다. 그는 연대기 성경 역사 차트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는 성서변증으로 국제적 명성이 있었음에도 많은 사람에게 늘 겸손하고 온화하며 접근하기 쉽고 남을 잘 돌보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필자가 1995년 신학교에 다녔을 때 휘트컴 박사의 제자인 두 분의 신약학 교수가 계셨다. 두 분 모두 그를 변증에 뛰어나며 겸손하신 '모두에게 존경받던 선생'으로 표현하셨던 기억이 난다.

AIG 대표인 켄 햄(Ken Ham)은 휘트컴 박사가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이라고 하며 "내가 만난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으며 믿음의 거장이었다.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며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 조지 헉필드 등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휘트컴 박사에 대하여도 언급할 것이다"라고 하며 휘트컴 박사의 신학적 업적을 높였다. 아울러 켄 햄은 "그에게 영향을 받은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며 남아있는 우리의 역할도 강조했다. ICR의 부회장이며 헨리 모리스 박사의 장남인 헨리 모리스 3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휘트컴 박사를 그리워하더라도 지금 그분이 주님과 함께 하심을 기뻐합니다"라고 하며 그의 소천을 아쉬워했다.



책 <창세기 홍수> 출간에 대하여 담화를 나누고 있는 헨리 모리스 박사와 켄 휘트컴 박사

휘트컴 박사는 2007년 AIG에서 "<창세기 홍수>의 역사와 충격"이란 제목으로 강연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1990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지적 설계 운동과

당시에 미국 대부분의 신학교는 이미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기에 6일 창조와 전 지구적 홍수는 신학계 안에서 거센 반박에 부딪히는 상황이었다.



<창세기 홍수>가 출판되었던 1961년 이전의 모습.
헨리 모리스 박사와 존 휘트컴 박사

점진적 창조론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지적하였다. '지적설계운동'은 어떤 지적인 존재가 우주 만물을 설계하였지만 성경의 창조자가 누구인지 언급하지 않는 자세의 움직임이다. 또한 '점진적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수십억 년 동안 진화의 순서대로 창조와 멸종을 반복하

였다는 타협 이론이다. 그는 이 두 이론이 동일하게 "진화도 반대하고 성경도 반대하는 독특한 이론"이라고 하며 교회에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자세임을 피력했다. 즉 지적 설계 운동은 '성경을 말하지 않는 창조'이며 점진적 창조론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창조'인데 이 두 이론이 얼마나 허술하고 위험한지 중요한 지적을 한 것이다. 성경을 사랑하는 위대한 선배 변증학자가 오늘날 교회에 남긴 통찰력 있고 간절한 마음이 아닐 수 없다.

주님께서 신앙의 거목들을 데려가실 때면 아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그리고 성경을 맡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한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창조과학선교회

www.His Ark.com / hisark@gmail.com

성경 변증에 대한 우리의 태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벧전3:15)”

성경은 베드로전서 3:15에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이성적인 변호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또한 먼저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의 주로 삼

고, 이것을 온유함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단 몇 가지의 답변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상대방을 이길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유함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과 똑같은 자비와 긍휼 그리고 사랑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증법이 항상 복음과 함께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8:18-20) 즉,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변증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15는 항상 답변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항상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못할 때 (베드로후서 2:3), 그들이 교훈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잠언 1:7), 혹은 그들의 목적이 분열하는 데 있을 때 (로마서 16:17), 그때는 지나쳐야 할 때입니다.

번역/이충현(치과 의사, 창조과학선교회 강사)

• 위 글은 *What is Apologetics – and why do it? (How do we know the Bible is true? 2 – Chapter6)* 중 'Apologetics in the Bible'에 대한 글이다.



창조과학탐사

대구 화원교회

지난 2월 10~17일 대구 화원교회(담임목사 신용기)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인솔 목사님을 제외하고 47명 모두 대학청년부와 고등부로 구성된 젊은 팀이었습니다. 젊은 만큼 첫날부터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며 진화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성경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화원교회는 이번이 세 번째 창탐이었으며, 이처럼 장년에서 다음 세대로 프로그램이 전달되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 전수에 충력을 기울임에 따른 열매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원교회는 다음 창탐뿐 아니라 교회 집회도 예약을 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산 대림교회

일산 대림교회(담임목사 김명호)는 2년 전 목사님과 장년부를 중심으로 탐사를 다녀가셨었는데, 이번에는 청년부 중심으로 두 번째 탐사에 참여하셨습니다. 역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창탐입니다. 2월 10~14일 닷새간의

일정으로 모하비사막, 세도나, 그랜드캐니언, 브라이스캐니언, 자이언캐니언 코스로 진행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진화론의 존재에 대해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산 대림교회



대구 화원교회

광주 첨단겨자씨교회

지난 2월 18~26일 광주 첨단겨자씨교회(담임목사 조성학)에서 창탐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닷새간 교회 집회를 가졌었는데 이때 이번 창탐 참석이 결정된 것입니다. 가족들과 중고등부를 주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참석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진화론에 깊이 들어와 있었으며 창탐을 통해 그 사고에서 충분히 벗어나는 기회였다고 간증했습니다. 혼자 왔던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와 함께 다시 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만큼 창탐을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야다국제학교



광주 첨단겨자씨교회

야다국제학교

2020년 2월 19~22일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야다국제학교 학생들과 인솔 교사 43명이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모하비사막과 콜로라도 고원, 그랜드캐니언, 브라이스캐니언, 자이언캐니언을 통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홍수연 교장 선생님은, “살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뜻 깊은 여행이었다. 앞으로 교회안에 들어와 있는 진화론의 영향과 학교 교과서를 통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진화론 세계관을 인식하고 창조과학선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조과학탐사 20주년

지난 광주 첨단겨자씨교회 기간에 창조과학탐사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00년 2월 25일 첫 창탐을 시작한 지 꼬박 20년이 된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454차를 출발했으니 매년 평균 22~23회가 진행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3일간의 창탐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간이 길어져 최근에는 대부분의 창탐이 1주일 정도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그랜드캐니언과 세도나를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브라이스캐니언, 자이언캐니언으로 확대되며 창조와 홍수 심판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데스밸리, 요세미티로 연결시켜 홍수 이후의 바벨탑 사건까지 다루는 빙하시대까지 더 많은 성경의 증거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으로 가득 찬 세상과 진화론과의 타협으로 얼룩지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 이 상황을 분별하고, 해답까지 제시할 수 있는 창탐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창탐을 시작시키고 이끌어 오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휘어졌지만 부서지지 않은

암석들, 습곡



편견 없이 관찰하면 그랜드캐니언의 각 암석은 오래된 지구가 아니라 젊은 지구를 증거하고 있다. 그중 동쪽 그랜드캐니언의 암석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데,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암석층이 심한 각도로 휘어진 '습곡'(fold: 수평으로 퇴적된 후 횡압력을 받아 흰 지층의 모양)이다. 약 90m의 태핏 사암층(Tapeats Sandstone)은 원래 평평한 지층이지만 이곳 동쪽에서는 마치 머리핀이 구부러진 것처럼 수직 방향 약 30m의 높이로 구부러져 있다(사진). 만약 지층이 단단하게 굳은 후 휘어졌다면 곳곳에 부서진 암석의 흔적이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흰 지층에는 부서진 흔적이 없다. 과연 이미 굳어진 상태에서 암석이 휘어질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층이 퇴적된 후 굳어지기 전에 변형된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구의 나이와 대홍수 심판에 관한 중요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

오래된 지구와 동일과정설을 믿는 지질학자들은 이 거대한 지층이 고대 해양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 쌓였고 그 이후에 4억 8천만 년 동안 조금씩 휘어져 지금의 습곡을 남겨놓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런 광대한 시간 동안 퇴적되었다

결국 쉬운 결론은 홍수에 잠겨 아직 부드러운 흙이 굳어지기 전 압력을 받아

습곡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홍수 심판 동안에 있었던 격변을 의미한다.

면 모든 암석층이 이미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버리기 때문에 그 후에는 아무리 느리게 압력이 가해져도 부서져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은 단단히 굳은 암석조차도 장구한 시간 동안 압력을 받으면 플라스틱처럼 변형될 수 있다는 믿음을 요구한다. 실제로 단단한 암석은 어느 정도 압력이 가해지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파괴가 일어나 부서져 버리고 만다.

물론 미세한 변형으로 인해 퇴적암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회전하며 일어나는 미세한 단층(지층이 서로 어긋나는 상대적 움직임)이 생겨날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발생하는 압력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포함해야 하기에 단순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미세한 변형의 흔적이 암석 곳곳에서 아주 많이 관찰되어야 하는데, 그 어디에도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지구> 책의 저자는 현재 일어나는 부서짐과 층들 사이에 서로 미끄러지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은 딱딱한 암석 속에 생긴 압력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 현상이 습곡을 형성시키는 유일한 요소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쉬운 결론은 홍수에 잠겨 아직 부드러운 흙이 굳어지기 전 압력을 받아 습곡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홍수 심판 동안에 있었던 격변을 의미한다. 이는 진화론자들의 4억 8천만 년 지구의 역사를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만다.

아울러 습곡이 성경의 역사에서 형성되었음을 뒷받침할 중요한 증거가 하나 더 있다. 태핏 사암층은 그랜드캐니언 대부분 지역에서 발견되는 결정질 기반암(crystalline basement rocks, 지질시대표로는 원생대 지층이며, 성경적으로 창세기 1장에 형성된 땅) 위를 덮고 있다. 이 기반암 곳곳에는 많은 단층과 함께 깨어진 모습의 흔적이 보인다. 이는 홍수 때 퇴적된 태핏 사암층과는 달리 이미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에서 압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이 기반암 위를 덮고 있는 태핏 사암층에는 이처럼 부서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는 압력을 받았을 당시 아직 굳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지층 어디에도 딱딱하게 굳은 다음 오랜 시간 속에서 습곡을 이루었다는 증거가 없다. 이것은 동일한 압

력을 받았지만, 지층의 단단한 정도의 차이에 따라 확연하게 다른 두 모습을 보여주며, 성경 기록과도 놀랍게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동일과정설을 믿는 지질학자들의 주장은 각각의 지층이 횡압력을 받아 휘때, 휘어진 중간 부분은 블록하게 더 두꺼워지며 양 날개 쪽은 상대적으로 얇아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레드월 석회암(Redwall Limestone)층의 두께는 약 200m이며 상대적으로 얇다고 하는 태핏 사암층이라 하여도 약 90m나 된다. 과연 딱딱하게 굳은 이런 두꺼운 암석이 아무런 부서짐 없이 변형될 수 있겠는가? 이 역시 습곡이 이루어질 당시에 퇴적 지층이 여전히 부드러웠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오래된 지구〉 책의 저자는 계속해서 ‘단단한 암석이 극도로 높은 온도와 강한 압력 속에서는 플라스틱처럼 변형될 수 있음을 모든 지질학자가 동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랜드캐니언의 퇴적암층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 또한 그랜드캐니언을 연구했던 모든 지질학자는 이런 압력을 겪은 흔적이 없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오직 동일과정설에 사로잡힌 독자들만이 〈오래된 지구〉 책의 주장에 넘어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지구가 세 번의 격변적 지각변동이 있었음을 말한다. 첫 번째는 창조주간, 그 다음은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와 마지막으로 홍수가 끝났을 시점이다. 그러므로 창조과학자가 그랜드캐니언의 구조를 설명할 때,

단 한번의 압력과 단 한번의 지각변동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창조과학자의 어느 누구도 이렇게 믿지 않는다. 또한 압력을 받은 모든 퇴적암층이 모두 똑같은 반응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홍수로 인해 퇴적된 지층이 사암, 석회암, 화산암인지에 따라 그 각각의 변형은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오래된 지구〉 책의 저자가 홍수 지질학자들을 불신하게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주장은 뒤로하고 비논리적인 전략을 쓰는 의도는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다.



Bill Hoesch
M.S. Geology

• 이 글은 〈그랜드캐니언, 오래된 지구의 기념비〉의 “12장 - 깨진 암석과 구부러진 암석: 단구, 단층, 습곡에 대한 반론 글이다.

번역 / 서은주 (ITCM 수료자)

참고문헌

- “Broken and bent rock: fractures, faults, and folds,” by Bryan Tapp and Ken Wolgemuth, in chapter 12 of Carol Hill and others (Eds.), *The Grand Canyon: Monument to an Ancient Earth*, Grand Rapids: Kregel, p. 117-127, 2016.
- “Development of monoclines: Part I. Structure of the Palisades Creek branch of the East Kaibab monocline, Grand Canyon, Arizona,” by Zeev Reches, in Vincent Matthews, ed., *Laramide Folding Associated with Basement Block - Faulting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Memoir 151, 1978, p. 235-271
- (“Faulting and forced folding in the Rocky Mountains foreland,” by David Stearns, in Vincent Matthews, ed., *ibid*, 1978, p. 1-37).
- “Identifying soft-sediment deformation in rocks,” G. Alsop, et al., *Journal of Structural Geology*, 30:1-8, Sept, 2017).
- “The squishy sands of South Utah,” by William Hoesch (2013), website of the Southern California Seminary, <https://www.socalsem.edu/the-squishy-sands-of-south-uta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뉴스레터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한 자들에 의한 간증 소감문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 www.hisark.com 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진화의 시대 가운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된 길임을 다시금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진화의 반대가 성경이기에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 주님을 증거해 하는 것이 CGNTV의 궁극적인 길임을 재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만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CGNTV가 되고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한국교회를 깨우고 세계교회를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에 힘쓰겠습니다. <온누리교회, CGNTV/함태경>

진화론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회 내의 교역자들과 학계에서 연구하는 과학도와 청년들이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성경의 노아 홍수를 비롯한 역사적 사실들이 한눈에 꿰어지는 눈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만 배운 진화의 사실이 진실 아닌 진실처럼 다음 세대의 의식과 세계관을 지배하는 이 무섭고 엄청난 일들이 하루 속히 멈춰질길 기도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름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도의 구원의 소식이 온 열방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누리교회/김은실>

저는 이곳을 두 번째 방문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관람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이 탐사입니다. 같은 곳이지만 첫 번째는 육체의 눈으로 보고 이번 탐사는 영안의 눈으로 보고 갑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눈물이 있는 이곳, 결코 하나님의 계획은 한 치의 오차도 없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돌아가면 이곳에서 보고 느낀 점을 전하고 나누겠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오게 한 CGNTV에게 감사드립니다. <온누리교회/정재민>

그동안 알고 있었고 배워왔던 인간의 지식과 학식이 얼마나 왜곡되고 거짓된 인간의 탐욕으로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된 탐사 여정이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고 참된 사실임을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며 깨닫는, 엄연한 사실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번 탐사를 계기로 다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의 천지창조,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등 역사적 사실을 3D로 해설하시는 이재만 선교사님의 탁월한 지혜와 통찰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더욱 건강하시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과 지혜가 모든 탐사에 참여하는 영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며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충성된 주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누리교회/김준홍>

딸과 사위의 권유로 창조과학탐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과학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내가 잘 못 게 맞나 싶었는데 둘째 날 노아 홍수 강의부터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전도할 때 노아 홍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 노아 홍수가 정말 사실인 것이 기뻐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강의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많은 학생과 목회자, 평신도들이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소망교회/권윤자>

17년 전 아이들 유학 때문에 캐나다로 가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 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게 도와주셨고 또한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도 경험해 왔다. 하지만 '성경이 사실일거야' 하며 나를 주임하고, 가끔 외부로부터 오는 의심은 그냥 쳐내버렸다. 이번 탐사를 통해 성경이 사실임을 너무나도 확실히 깨닫게 되어 정말로 감사하다. 항상 성경을 사실 그대로 진리임을 확신하니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모든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음을 확신한다. <온누리교회/최희정>

탐사에 오기 전엔 지금이 가장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눈과 마음을 잡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며 감탄하는 동안 선교사님은 '처음이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의 이전도 좋았습니다' 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창조과학탐사 5박 6일의 시간을 보내며 알게 된 이 사실들을 날마다 더 새롭게 기뻐하기 위해 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있겠습니다. 여태 알고 있던 노아방주의 모양이 보트가 아닌 박스라는 사실에 다시 놀라며 이제는 주님의 박스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겠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을 깨우쳐 주신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CGNTV/김세준>

2020 ACT Schedule

5/18-22	창조과학탐사 (수지글로리아교회), 이재만
5/25-30	창조과학탐사 (이랑학교), 이재만
5/30	창조과학샌디에고탐사(주님의빛교회), Bill Hoesch
6/1-5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초대교회), 이재만
6/8-16	창조과학탐사 (온누리한강공동체), 이재만
6/15-19	창조과학탐사 (합동신학원), 이재만
6/21	창조과학세미나 (머무는교회), 이재만
6/22-29	창조과학탐사 (CEO스쿨), 이재만
7/1-5	창조과학탐사 (서진교회), 이재만
7/6-9	창조과학탐사 (hold), 이재만
7/13-19	창조과학탐사 (한동대학교교수), 이재만
7/20-24	창조과학탐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이재만
7/24-27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